카잔, 러 첫 한국어 올림피아드

러시아 및 우즈벡 카자흐스탄에서 총 68명 참가 한국어 실력 다퉈
통일문제 한류 및 관광 관련 심도있는 발표들 심사위원들 놀라게해

▲ 첫 한국어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통일을 주제로 말하기 1등을 수상한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3학년 학생 알렉산드르 한. 조리있는 말로 통일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원고를 발표해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사진/카잔연방대 한국학센터제공

<여레일보 www.koreans.ru 박지호 기자>

"저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운동이 한반도 밖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계에 7백만명 이상의 한국 해외동포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포함하며 온 세계 해외동포단체들이 공동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경제사업에 협력하는 한편, 전세계 한민족 대잔치를 부활시킨다면 세계적인 '신한반도 통일운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음악은 우리를 더 큰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잘 보존하고 또 케이팝을 발전시키는 한국인들을 존경합니다."

이번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학생들은 또박또박 한국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남북통일 문제와 케이팝 등 다양한 주제를 각자 남다른 시각으로 심도있게 발표해 참석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올해 볼가강을 끼고 있는 러시아 카잔지역에서 지난 12월 8일 개최된 러시아 교육청이 인정하는 제1회 한국어 올림피아드의 열기는 이처럼 지난 10년간 치러진 일반 한국어 경시대회보다도 한층 격상된 분위기속에서 더욱 뜨거웠다.

고등부와 대학부를 비롯 총 69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 대회는 쓰기와 말하기로 나뉘어져 통일문제와 관광을 포함 한국문화와 경제를 주제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또 참가한 지역도 브랴찌야공화국,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첼랴빈스크, 모스크바, 모스크바주, 보로네즈, 로스토브나도누, 니즈늬깜스크, 나베르늬첼늬, 카잔, 바쉬꼬르또스탄공화국 등 러시아 전지역을 망라했다. 국경을 넘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끼르기즈공화국 에서도 참여 명실상부한 국제 올림피아드의 면모를 나타냈다.

이 대회는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고영철교수)와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신한대학교 서갑원 총장은 인사말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올림피아드에서의 경험을 기회로 삼아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한 후 원하는 한국유학의 꿈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라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말하기 시험은 한국관광과 명소소개, 한국과 북한문제, 한국영화, 한국문학, 한국전통문화, 한국인의 사고방식, 한국음악, 한복, 한국사회, 한국음식, 한국역사, 한국미술, 한의학, 사이버스포츠 등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각자 7분간 발표로 진행되었다. 쓰기시험은 대학부는 한국문화의 특징 고등부는 케이팝을 주제로 40분간 치러졌다.

현재 러시아에는 대학교 30개, 고등학교 20여개, 세종학당 9곳, 한글학교 99개소에서 연간 만여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다.

이 행사는 신한대학교, 국제교류재단, 경동나비엔, KEB 하나은행,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했다. 입상자 전원에게 신한대학교에서 한국어연수 장학증서가 수여되었으며 한국 핸드폰을 비롯 기타 한국 물품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한국 관광 소개 책자 등이 부상으로 수여되었다. 또 카잔 이외 지역에서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숙박과 식사가 제공되었다.

다만 유일하게 치러지는 한국어 올림피아드라는 행사의 특징과 규모에 맞추어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보다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안겨주었다.

올림피아드를 주관한 카잔연방대 고영철 교수는 "그동안 10년 동안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의욕 증진과 한국유학의 통로로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였는데, 이번 대회부터는 러시아연방에서의 공식 인정을 받아 큰 의

■ 말하기대회 1등 : 한 알렉산드르

"한반도의 통일, 대비가 필요하다"

"저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운동이 한반도 밖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계에 7백만명 이상의 한국 해외동포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포함하며 온 세계 해외동포단체들이 공동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경제사업에 협력하는 한편, 전세계 한민족 대잔치를 부활시킨다면 세계적인 '신한반도 통일운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공론화되었고 주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뿐만아니라 북한사람들도 한반도통일이 장기적으로 경제발전, 인구문제, 보안 및 다른 분야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정부와 전문가들은 통일이 불러올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연구와 토론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이 분단된후 남북한 사람들 사이에 깊게 자리잡은 문화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차이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반도 통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두 정부의 통일일까요? 아니면 한 겨레의 통일일까요?

한국은 분단된 지 7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즉, 분단 이후 이미3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올해, 제가 여름에 북한에서 연수를 했을 때 북한과 남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커졌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런 차이는 옷과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생각에서도 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의 차이가 과거 두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상이함 때문에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경제적 상이함은 한반도 통일에 지금도 제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지내는 동안 사회주의 사상과 고립주의가 외국인과 남한사람에 대한 북한사람의 시각에 제일 큰 영향을 주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경우에 북한사람들은 외국인을 극도로 경계하고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남한과 미국의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위압과 관련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젊은 세대의 생각은 기성세대에 비해 좀 더 열려 있고 낙천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남한사람들 또한 북한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런 불신은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적인 협박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대부분 제 또래의 한국친구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북한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남과 북의 문제를 떠나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이런 시각의 차이는 한국 전쟁에 대한 경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간의 시각차이를 무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바로 독일의 통일경험이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독일통일은 서독이나 동독, 모두에게 믿을 수 없고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활수준과 경제발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치열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실업자의 증가였습니다. 즉, 어제 안정된 일을 가졌던 사람이 경제 및 정치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통일이 되자 동독인들은 서독에서 사는 동포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찾아 서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이 자기들의 직장을 빼앗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 자리의 문제가 동서독인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독일 통일의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과 북의 일반 국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공동행사가 열리면 좋을 거라거 생각합니다. 요즘 남북한 정부가 이런 행사를 활발히 준비하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선수단이 함께 금메달을 딴 행사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서로에 대한 좋은 관계를 형성시켜 줍니다. 더군다나 지금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즉, 이 신청이 IOC 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평화와 통일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행사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반도의 통일이 남북한 두 정부와 국민의 통일에서 그친다면 진정한 통일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남북한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행사들이 서로의 믿음과 이해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통일 운동이 한반도 밖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계에 7백만 명 이상의 한국 해외동포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포함하며 온 세계 해외동포단체들이 공동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경제사업에 협력하는 한편, 전세계 한민족 대잔치를 부활시킨다면 세계적인 '신한반도통일운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런 계기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오랜 시대를 거쳐 현지화 되어가는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우리나라와 민족이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쓰기 시험장 모습. 모두들 진지하게 글쓰기에 열중하고 있다. (오른쪽) 입구에서부터 한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이번 행사 참여자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사진 / 카잔연방대 한국학센터 제공

미가 있고, 추후 보다 발전된 단계로 나가야 하기에 책임감이 더 무겁다" 라고 행사 개최 소감을 밝혔다.

행사 종료후 전체 참가자들에게 시내 유럽호텔의 부페식당에서 만찬이 제공되었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천리길을 달려왔지만 모두 한국어를 학습한다는 점에서 공감대와 우애를 다지면서 아쉬운 작별과 더불어 행사를 마무리했다. ***

*****이번 제1회 한국어 올림피아드 말하기 대회 1,2,3등의 수상작을 소개한다. 1등은 박스참고 *****

말하기 부문 2등

한국 음악의 가치

● 신카렌코 캐롤라이나
● 보로네즈 보로네즈 국립에너지기술대학교 화학공업용기계및장치 4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네즈에서 온 카롤리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세요?

이 노래는 씨엔블루의 '외톨이야'입니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즐거운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이 노래 가사가 슬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노래는 참 매력적입니다. 이 노래를 들은 후에 저는 한국 음악에 푹 빠졌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저의 첫 번째 한국어 선생님인 셈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음악과 그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케이팝을 좋아하지만, 사실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에 꼭 필요한 비가 오지 않거나 추수를 할 때 노래와 춤을 추면서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옛날부터 한국 음악은 다양한 종교 의식이나 모든 예식에서 빠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음악은 한국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에서 주로 사용된 악기는 가야금과 아쟁입니다. 이외에도 대금, 장구, 꽹과리 등 많은 전통 악기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 전통 음악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한국은 한국만의 음악을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악을 대하는 한국인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케이팝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 음악과 노래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 노래는 '아리랑'입니다. 우리 '바로네즈 한글학교'에서도 명절 때 아리랑을 자주 부르는데, 가사도 쉽고 멜로디가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한국은 전통 음악을 잘 지키면서도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케이팝을 만듭니다. 케이팝은 90년대 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은 한국 가수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케이팝의 인기는 아이돌의 출현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의 인기 덕분에 '한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국 음악은 전 세계에 '한

▲ (위) 한 참가자가 한국어 올림피아드 말하기 대회에서 한국문화에 대해 스크린 화면과 더불어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말하기 고등부 1등 레비나 빅토리아. 신한대학교 서갑원 총장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카잔연방대 한국학센터 제공

▲ 참가자 전체 단체모습. 사진 / 카잔연방대 한국학센터 제공

국' 을 알리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노래를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가수들이 잘 생겨서요? 멜로디가 좋아서요? 춤을 잘 춰서요? 맞아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케이팝 가수들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 음악을 통해 사람들은 많은 위로와 기쁨을 느끼고, 삶의 목표를 발견합니다. 한 나라 음악이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력과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엑소 좋아하세요? 엑소 노래 '럭키'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노래이지만, 처음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같은 언어로 말을 해서 참 행운이야, 참 다행이야'

저는 러시아 사람으로 태어나서, 러시아 말을 하는 여러분을 만나서 참 행운입니다. 그런데 더 큰 행운은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말로 한국 음악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음악은 우리를 더 큰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잘 보존하고 또 케이팝을 발전시키는 한국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한국 음악을 통해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말하기 부문 3등

남북 소통 프로젝트

● 즌드메에바 스베들라나
●울란우데 부랴트국립대학교 한국어2학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남북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였던 두 국가가 너무 다르게 보였고 통일은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지금은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뉴스에서 보도되는 남북 정상 회담을 비롯한 남북의 만남은 두 나라 관계에 발전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합니다. 저는 다양한 문제 중, 탈북자 문제가 아주 심하다고 생각하고 인터뷰와 영상 등 여러 정보를 찾아 봅니다.

대부분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남북소통프로젝트" 라는 영상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EBS 채널에서 방영되는'괜찮아요 일없습네다'라는 남과 북의 대표 고등학생 10명이 함께 공부하는 ' 남북소통학교' 특별한 선생님들 과 수업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를 알아가는 남북 청소년들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청소년들의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방식도 다르고 차이점이 많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통해 탈북자들의 힘든 생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고향을 떠나고 자신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를들면 2017년 19 살 이림은 탈북했습니다. 이림이 탈출할 때 2 번이나 잡혔기 때문에 탈출하는 데 1 년 정도 걸렸습니다. 한번은 라오스를 통해서 산을 넘다가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다행이 살아 나와서 다시 중국으로 내려왔는데 호텔에서 또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북송되면 탈출은 커녕 가족들은 다 피해를 입으니까 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은 이림이 처음으로 남한친구들 사귀고 춤추는 것을 배울 기회가 생겨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림이는 함께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림 말에 따르면 자신은 행복하니까 아빠를 잊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아빠가 너무 보고싶고, 북한에서 잘못해 드린 것이 너무 후회된대요.

다른 여학생 2014년 탈북한 21살 김진혜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북한에 남아 계시니까 견딜 수 없이 외로울 때는 탈북을 선택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진혜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셨으니까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면 어엿하게 대학생이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이애들은 저와 나이 같은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위험을 극복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큰 감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한학생들이 북한학생들을 친절하게 도와주는 것을 보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한말과 북한말이 많이 달라서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북한 말투도 하나의 사투리로 받아들이면 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반도가 분단된 역사가 수십년이지나서 많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차이가 있지만 "괜찮아요 일없습네다" 프로그램에서 나온 학생들 같이 지내다 보면 큰 차이도 별로 없고 소통하는데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남북이 서로를 오갈 수 있는 날도 금방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글쓰기 부문 1등

한국문화의 특성

▲ 수상자 단체 사진 / 카잔연방대 한국학센터 제공

제1회 한국어 올림피아드 수상자 명단

말하기 대학부

등위	성명	지역/학교/학년	제목
1	한 알렉산드르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교 동양학 3학년	한반도의 통일, 대비가 필요하다
2	신카렌코 캐롤라이나	보로네즈 보로네즈 국립에너지기술대학교 화학공업용기계및장치 4학년	한국음악의 가치
3	즌드예에바 스베들라나	울란우데 부랴트국립대학교 한국어 2학년	남북소통 프로젝트

말하기 쉬꼴라부

1	레비나 빅토리아	러시아, 이제브스크 №52학교 11학년	한국의 사고방식과 한국에서의저의인생
2	네스테로바 나데즈다	러시아, 보로네즈 학교 №100 11학년	한국의 전래동화
3	카비불리나 젬 피라	타타르스탄 니즈니마크타마스카야 No.1 School 11학년	청계천

쓰기 대학부

1	부토리나 크세니아	카잔 카잔연방대학교 한국경제 4학년	한국문화의 특징
2	그레코바 나탈리아	노보시비르스 노보시비르스크국립대학교 동양과아프리카 3학년	한국문화의 특징
3	루키야노바 엘리자베타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 외국지역연구 3학년	한국문화의 특징

쓰기 쉬꼴라부

1	느구옌 리옌 탕	우파 우파고등학교 졸업	한국 k-pop
2	레비나 빅토리아	이제브스크 №52,학교 11학년	한국 k-pop
3	사비로바 울리야나	카잔 №171학교 10학년	한국 k-pop

심사위원 명단

쓰기 부문	말하기 부문
-위원장: 겨레일보 사장 박종권 -위원: 카잔연방대 교수 고영철, 신한대학교 국제어학센터장 최창영, 보로네즈 한글학교 교장 서지연, 카잔연방대 안다리야 교수	-위원장: 신한대학교 국제어학센터장 최창영 -위원: 카잔연방대 교수 고영철, 겨레일보 사장 박종권, 신한대학교 한상욱교수, 전사할린한인협회 회장 노예영, 카잔연방대 교수 후지나 알리나, 카잔연방대 교수 겸 따따르한글학교 교장 김영숙

● 크세니야 부토리나
● 카잔연방대학교 한국경제 전공 4학년

한국문화란 한민족의 언어와 특별한 역사와 비범한 것을 담겨 있는 문화다. 각각 나라는 자기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다르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에서 슬픈 역사적인 순간과 기쁜 순간이 있다. 한국 작가들이 (예: 윤동주) 괴로운 시간에 대해 시를 만들었다. 이러한 행동 덕분에 우리가 한국 역사를 알 수 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 사람들한테 해를 주고 괴로운 시간을 느끼도록 시켰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했다. 더욱이나 자기 자신들한테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 많은 것을 남겼다. 이것은 바로 한민족의 의지다. 그때는 사람들이 "지금 흘린 눈물이 나중에 진주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생각했다.

그렇지만 한국문화는 모든 슬픈 순간을 담겨 있지 않다.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많이 남았다. 예로 세종대왕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한글(자기 언어와 글)을 얻었다. 또 힘든 일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한글을 만들었다. 그리고 역사적인 건축물도 만들었다.

한국문화의 특징은 한민족이 힘든 순간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예술적인 것을 만들었다. 이러한 분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한국 문화를 자세히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긍정적인 것이다. 더욱이나 미래의 사람들이 이 문화를 알고 나서 이 문화를 발전 시킬 것이다. 이렇게 한국 문화가 죽지 않고 발전하면서 자라 나갈 것이다.

나는 한국에 가 봤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본 신기한 것은 옛날 건물이 아직도 소중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때 나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식들에게도 외국인들에도 자기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